

월요광장

어린이를 생각하다



정봉남
순천 기적의도서관장

해마다 요맘때 어린이와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다. 길어온 길에 대한 성찰과 걸어갈 길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첫해에는 '미래 세대 책 읽기 문화 어떻게 도울까?'를 주제로 '학습된 무기력'을 넘어서 어린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독서 환경에 대해 논의했다. 두 해째는 '우리가 만나야 할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외 해외 도서관 사례를 살피고 우리가 궁극에 닿고 싶어하는 지점은 어디일까 생각했다. 독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작가, 출판사, 독서 단체, 시민 사회의 원탁회의(라운드 테이블)도 함께 열려 뜻깊었다. 한일 교류를 했던 지난해에는 '어린이, 도서관, 그림책'이라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21세기 어린이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하는 화두를 던졌다.

"우리들이 재밌게 놀수 있는 도서관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요./우리와 통하는 사서 선생님이 많으면 더 많이 도서관에 갈 거예요./재밌는 책을 보여 맘껏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웃기는 데 웃을 참는 거 너무 힘들어요./군인 아저씨들처럼 똑바로 앉아서 책 보는 거 너무 힘들어요. 편하게 책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만화책도 책이잖아요. 좋은 만화책도 많이 보여 주세요./책장 높이를 낮춰 주세요. 책이 손이 안 닿아요./우리를 우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차별하지 마세요. 도서관에서 똑같이 책을 보고 싶어요./몸이 불편한 친구들도 우리와 똑같이 책을 볼 수 있어야 해요./답답하게 건물 안에만 있지 말고 밖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싶어요./누가 책을 많이 읽는지 때문에 우릴 비교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네 번째 포럼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준비하면서, 생생한 저 아이들의 목소리를 읽고 또 읽는다. '도서관 어린이 권리 선언문'이다. 2005년 5월, 사단법인 '어린이와 도서관'이 주최한 '전국 어린이와 도서관 한마당'에서 전국의 어린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 만든 것

이라고 한다. 우리는 저 목소리에 얼마만큼 답한 걸까. 어깨동무하고서 어디만큼 걸어왔을까. 올해는 어린이 도서관의 도전과 실험, '어린이 전문 사서'의 가능성도 짚어 볼 것이다. 어린이 전문 사서? 그게 뭐냐고 묻는 분들이 많다. 어린이도서관에서 일하면 다 어린이 전문 사서 아니냐고,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묻는다. '어린이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서'가 어린이 전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 담당 주체들의 질적 성장과 철학, 열정과 헌신을 어떻게 공적으로 담보하고 지원할 것인지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어린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이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함께 특별한 책임과 권한도 필요한 것이다. 국제도서관연맹(IFLA)은 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 지침에서 헌신적이고 숙련된 어린이 담당 사서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열정, 뛰어난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협력,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능력,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말한다. 또한 '아동 심리 및 발달, 독서 진흥에 대한 이론, 예술 및 문화적 기호,

어린이 관련 도서와 매체'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요약하자면 어린이 전문 사서의 조건은 '어린이 책에 대한 이해, 어린이를 좋아함, 업무에 대한 열정'이다. 무엇보다 어린이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성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열정과 헌신이 무효는 아니다. 오히려 더 대우를 해야 한다. 더불어 이런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면 어린이 서비스를 담당하면 안 되는 것이다. 어린이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고 느낀다. 그럼에도 어린이를 상업적 경쟁의 도구로 내모는 세상과 싸우며 어린이의 창조적 도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린이의 삶이 존중받는 세상을 향한 그들의 헌신과 열정은 어린이를 대하는 도서관의 언어로 꽃피고 있다. "무엇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로 성장하길 바라는지, 어떤 삶을 살길 바라는지, 물론 해요. 저 자신에게 먼저 질제 해결 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협력,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능력,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말한다. 또한 '아동 심리 및 발달, 독서 진흥에 대한 이론, 예술 및 문화적 기호,

社說

'광주형 일자리' 사업 누가 휘방을 놓는가

광주에 현대자동차 합작 공장을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에 대한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 협약 체결이 이번 주에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가 최근 합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 윤중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과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등 광주형 일자리 원탁회의 구성원들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차와 협상한 투자협약서(안)를 수정·보완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현대차와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 출범하는 투자유치추진단 회의를 열어 현대차와 재협상할 투자 협약서 수정안을 마련하고, 광주시는 현대차와 조율을 거쳐 최종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 노동계가 광주시와 현대차의 제안을 상당 부분 수용함에 따라 향후 광주시가 현대차와의 추가 협상에 기

대가 모아지고 있지만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회사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투자하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 광주지부도 이날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이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명목은 '실적 악화'와 '경영 위기'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조원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을지 모른다는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우선 현대차가 대승적 차원에서 용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대차 노조나 민주노총도 꼭 막힌 지역 고용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광주형 일자리를 이유로 한 파업에 공감하는 이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 광주형 일자리 구상 진전을 위해 현대차와 노조가 화답할 차례다.

'국립 섬 진흥원' 전남으로 오는 게 당연하다

전남도가 섬 발전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와 개발을 총괄할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다른 시도에 비해 가장 큰 비교 우위이지만 정부 정책에서 소외돼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섬들을 살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국책 기관인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이지만, 연구진흥원 설립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섬 발전 대책'에도 이미 포함돼 사실상 확정된 섬이나 다름이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섬을 끼고 있는 전남도는 물론 인천시·경남도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전국 섬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에 진흥원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 전남에는 2165개의 섬이 있는데 유인도는 전국의 57.3%인 276개, 무인

도는 64.5%인 1889개에 달한다. 더욱이 전남도는 또 섬 발전을 위한 종합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을 정부에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자체적으로도 구체적인 설립 방안에 대해 용역을 할 예정이다. 전남의 섬에는 육지와 차별화된 독특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생태와 관광 자원도 풍부하다. 하지만 주민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상당수 유인도가 무인도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물이나 전기 공급 시설이 열악하고 교육·의료 서비스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생태·관광 자원을 연구할 전문 기관이 국내에는 아직 없다. 국립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은 이런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며 향후 섬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입지는 섬이 가장 많고 '가고 싶은 섬 가구' 등 섬 개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전남이 최적이다.

법조칼럼

조선책략이 전한 외교술의 유효 기간



김상훈
변호사

'진중국(親中國), 결일본(結日本), 연미국(聯美國)하고 자강을 도모하라' 1880년 김홍집 예조판서가 한 달여간 일본 수신사로 갔다가 귀국 길에 가져와 고종에게 바쳤다는 조선책략(朝鮮策略)의 핵심 주장이다. 주일 청국 참사관 황준헌의 러시아 대비용 외교 리포트라 할 만하다. 중국은 물질, 형국이 러시아에 필적하고, 조선은 수천 년간 중국 변방으로 지내왔으므로 양국 우호로 러시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조선과 가장 가깝고, 통교 역사가 길며, 양국 중 어느 한쪽이 땅을 잃으면 서로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보거상의(輔車相依) 형세이므로 서로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은 타국의 토지나 인민을 탐내

지 않고, 타국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민주 국가로서 오히려 약소국을 돕는 대국이나 미국을 우방으로 삼으면 화를 면할 것이라고 했다. 3차례 남북 정상 회담, 역사적 북미 정상 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2018년에도 한반도에서 중국, 일본, 미국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해 보인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130여 년 전 3국에 대한 황준헌의 호평(好評)과 달리, 피도 눈물도 없고 도의와 명분을 챙길 여유도 없이 철저한 자국 이익 우선주의라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공자의 정치 메시지는, 국제 외교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어찌면 현대 외교는 공자 기준에서 보면 소인의 정치일지도 모르겠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치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외친 'America First!' 정책의 관점은 자신의 유권자에만 집중되고 그 외의 시민 복지나 동맹국과의 외교 안정 등은 논외인 것 같다. 멕시코 접경에 철 장벽이 세워졌고, 반이민 행정 명령으로 7개국 무슬림 이민자와 난민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제

아무리 타결된 NAFTA, FTA 등 국제계약이라도 재협상 요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중동에서 이란은 고립시키고, EU와 러시아는 개별 관리하며, 국내법에 근거한 중국에 대한 단계적 관세 부과 위협 등은 힘에 의한 약자 무릎 꿇리기에 다름 아니다. 미국 관세 폭탄에 당하고 있는 중국은 과연 항상 '을'인가. 미국에 사드 배치를 위한 성주를 주한 미군 기지로 제공한 것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이고 집요하며 광범위하고 계속되고 있는 개별 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는 충격적이다. 그와 같은 유사적 보복 조치를 보고도 중국을 대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일본은 어떤가. 전범 국가란 원죄에서 근대 국가를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공식적으로 결코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 일본 전범 기업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강제 노동은 머리 속에 사과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는 2원적 태도를 취한다. 중국이나 일본의 태도는 흡사 강자에게 무릎 꿇고 뒤돌아선 다음 자신보다 더 약한 자에게 가하는 비겁한 양강음 같다. 세상이 힘의 우열로 줄 세워지고, 응

줄하거나 비겁한 양강음이 난무하여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아 번영하여야 할 것이다. 모처럼 한반도에 해빙 분위기가 무르익고, 평화와 통일의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폐쇄된 개성공단이 열리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DMZ는 평화구역으로 다시 태어나고, 북산에서 정진·나진을 잇는 동해안과 북포에서 신의주를 잇는 서해안의 물류 체계가 모색되고 있다. 남과 북이 남북 교류 협력법이 정한 바대로 통일을 향한 특수 관계의 접촉면을 늘리는 노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비가역적 비핵화를 명분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한 형제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은 한반도 통일에서 오는 자국 기회 상실을 막기 위해 저마다 이유로 남과 북의 협력과 밀착에 제동을 뺄으려 한다. 미중일을 빼고 남북의 협력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이 국제 현실이라면 치사하지만 그 제한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880년 러시아를 상대로 한 조선책략의 방책은, 2018년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참 씁쓸하다. 하루 빨리 남북 통일이 되기를.

기 고

가는 정, 오는 정



양훈
현대문예작가회 회장·수필가

우리의 옛말에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지"라는 말이 있다. 상대방이 너무도 정이 없고 냉정하여 이쪽에서 정을 줄래야 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한 번 거꾸로 붙여 보자.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지" 듣기에 조금도 서투르거나 어색하지 않고 점잖은 문구가 아닌가? 남에게 먼저 나의 정을 주어 보자. 그리고 오는 정을 반갑게 받아들여 나의 빈 마음의 발을 가득 채워보자. 받는 기쁨

보다 아낌없이 주는 그 즐거움일! 남편과 아내 사이일수록 이 정이란 더욱 미묘한 것이다. 정이란 사랑이 같이 할 때만이 생길 수 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누구에게나 깨내 보일 수는 없다. 그러나 물이 그릇에 가득 차면 자연히 넘쳐 흐르기 마련인 것처럼 사랑이 가슴에 가득 할 때엔 물질적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 상례라고 본다. 서로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맞이할 때 작은 꽃 한 송이, 한 포기의 화분을 사 들고 아내의 파스한 가슴에 안겨주는 것, 혹은 남편의 취미에 맞는 넥타이 하나라도 사 가지고 다정하게 그 목에 매어 준다면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엔진에 윤활유를 넣어 주어야 그 엔진이 고장 없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같이 그 가정은 무엇인가 말로는 형용지 못할 부드러운 명랑함을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부부 사이의 결합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예술(Art)이라고 본다. 두 사람이 그저 합하여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결혼 생활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나. 무엇인가 믿음직하고 신비하고 황홀함이 있어야 그것을 참다운 의미의 결혼 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시들이 가는 꽃송이와 흡사한 가정을 가질 이유가 아무 데도 없다고 믿는 동시에 왜 향기롭고, 운택하고, 황홀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꽃포기 밑에 작은 한 줌의 거름을 때에 따라 가끔가끔 줄 수 없겠느냐 말이다. 한 가정 한 가정이, 사회가 나라가 싱싱한 꽃포기처럼 향기로운 향내를 피울 수 있을 때 가정, 사회, 국가도 건전하게 같이 자랄 수 있겠고 향기 가득한 꽃동산이 될 것이라 믿는다. 내가 묵히고 있을 때의 일이다. 교

우들에게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를 각인시키면서 먼저 본 사람이 정과 사랑을 주는 신앙 실천 운동을 펼친 적이 있다. 아내를 경우는 "사랑해요" "고생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 최고야", 남편들은 "오늘 따라 당신 더 예쁘네!" "뭐니 뭐니 해도 나에게게는 당신이 전부요" "결혼 잘한 것 같아" "당신만은 믿어요" "애가 당신 닮아서 정말 똑똑해요"라고. 애정 어린 말, 운유함이 담백 담긴 말로 내가 먼저 사랑을 주고 정을 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먼저 정을 주는 신앙 생활 운동을 펼친 후 회교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펑 감사한 일이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지" 얼마나 참된 기독교인의 정신이요, 신사적이 될 것인가 하고 가만히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無等鼓

'민주주의'는 워낙 익숙해 진부하기까지 한 단어지만, 실제로 이 단어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 것은 100년도 채 되지 않은 데다 결코 거저 얻어진 것도 아니었다. 미국에서야 243년 전인 1775년 독립 선언과 함께 독립 전쟁이 시작되면서 민주주의가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지어갈 때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의 주 무대인 광주에서는 수 많은 시민이 계엄군의 군홧발과 총알 아래 붉은 피를 흘리며 참혹하게 죽어 갔다. 얼마 전 광주를 찾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더 전 독일 총리는 국립

고 새로운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선 커다란 희생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 역시 절대 왕정에 이은 군사 독재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새로운 사회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린 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의 주 무대인 광주에서는 수많은 시민이 계엄군의 군홧발과 총알 아래 붉은 피를 흘리며 참혹하게 죽어 갔다. 얼마 전 광주를 찾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더 전 독일 총리는 국립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수준이 미국의 그것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전

더 전 독일 총리는 국립 5·18묘지를 참배하며 "이곳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민주주의가 거제로 한다면, 우리는 미국의 3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을 들여 민주주의를 지금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속도가 빨랐던 만큼 민주주의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수많은 국민의 피가 뿌려져야 했다. 미국의 독립운동가 토마스 제퍼슨은 "자유라는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로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작고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말하면서 널리 알려진 이 문구는 구체제를 몰아내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자사 지국(국도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경 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 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매 체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이메일 opinion@kwangju.co.kr